

시공을 넘어 만나는 조선시대 천재시인의 세계

신호열·임형택 옮김 《역주 백호전집》을 읽고

박석무

호남대 객원교수·다산연구가

《백호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상·하 두 권의 백호문집 역주본이 출간되었다.

시간이 풍기는 잉크냄새를 맡으며 책을 펴보는 순간, 우리의 출판문화도 이런 정도의 책을 출간할 지경에 이르렀구나하는 탄성을 발하며, 옥동자를 안는 부조(父祖)의 심정에 잠기는 기분이었다.

백호 임제(林悌:1549~1587)선생, 39세라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요절했던 대문호(大文豪), 그의 전 저작이 완벽할 정도로 수집되어 심혈을 기울인 번역과 주석(註釋) 및 교감(校勘)까지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선생의 문학과 사상을 제대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후 400년이 더 지난 오늘에야 백호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세속의 모순을 고뇌했던 탁월한 시인

오늘날 학계에서 정리된 논리에 의거해서 백호의 삶과 그의 시대적 배경을 간추려 보자. 백호는 전라도의 나주 고을 회진(會津)에서 나주 임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곳은 본디 회진현의 옛터여서 회진 임씨라고도 호칭되었는데, 특히 백호라는 대시인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했지만, 백호 이후로도 많은 시인들이 문명을 떨치던 곳여서 '시점(詩店)'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곳이다. 회진 임씨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는, 기묘사화 때에 태학생으로 소수(疏首)가 되어 정암 조광조 선생을 구출하려 했던 귀래정 임봉(林鵬:1486~1553)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귀래정은 문과에 급제 후 화려한 벼슬인 한림과 옥당을 거치고 승지와 경주부윤을 역임하면서 내외에 큰 이름을 드날렸다. 기묘명현으로 알려진 그는 익(益:장수현감)·복(復:문과 급제한 시인)·진(晉:무과에 급제 후 5도 절도사 역임) 3형제를 낳아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손자 및 증손자 대에 오면서 수효도 많고 학예와 사환으로 큰 명성을 얻은 분들이 많아 명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백호는 귀래정의 손자이자 절도사 진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과 아우 4형제가 모두 이름 있는 시인이었고 아들 중에도 시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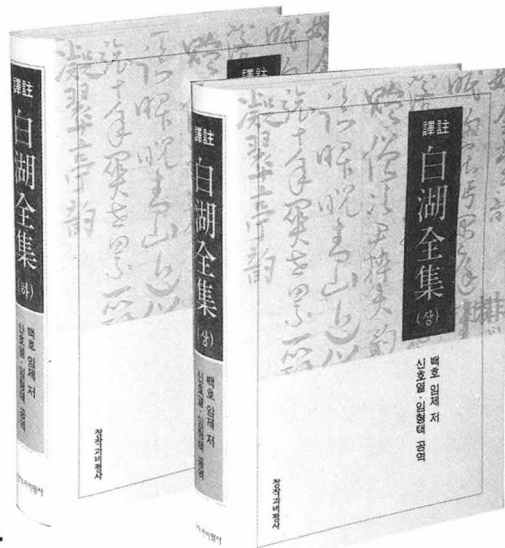
**39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대문호
백호 임제의 전 저작이
완벽할 정도로 수집되어,
심혈을 기울인 번역과
주석 및 교감까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진 전집으로
탄생하게 됐다. 사후 4백년이
더 지난 오늘에야
백호를 만나는 기쁨은
옥동자를 안는 부조의 심정이다.**

하는 분이 많았다. 백호는 28세에 진사시에 3등으로 뽑히고 29세에 문과에 2등으로 급제하여 고산찰방·평안도사·예조정랑·지제교 등의 벼슬을 지냈다. 뛰어난 천재로 하루에 수천 마디의 글을 외웠고, 문장이 호탕한데다 시에는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더구나 당시의 큰 학자이던 대곡 성운(成運)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인 유학(儒學) 공부를 하였으니, 그때가 3년의 속리산 시절이었다.

당시의 시대는 어떠했을까. 조선왕조 16세기 후반, 유교라는 강고한 틀로 명교사회(名敎社會)가 굳어지면서 사대부사회의 유규(儒規)와 예교가 자아나 주체의식의 상실을 초래하고, 상부 사회의 분열로 당파싸움이 벌어지면서 세속의 모순은 중첩되는 지경이었다. 백호야말로 그러한 내면의 모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한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려고 고뇌했던 탁월한 시인이었고 풍류와 자주의식을 함께 혼합해서 다음 세대에 게 문학의 새로운 방향과 안목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냈다.

《역주 백호전집》은 천재 시인 백호의 시와 문을 오늘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책이다. 수집 가능한 그의 전 저작을 모두 모았고, 전해지는 작품들의 진위까지 제대로 가려서 백호문집의 정본(定本)을 이룩한 셈이다. 이 책만이 지닌 특이한 우수성을 찾아보자.

“바람 차옴고 밤은 물인 양
달이 비껴 난간에 기댄 사람들.



갈대 숲 사이 어화(漁火)가 비치는데
먼 포구에 돌아오는 배.”(五言絕句)

이 그림 같은 시를 보라. 우선 이 책은 원작자가 절세의 시인으로 너무도 아름답고 고운 시들이 실려 있고, 훌륭한 산문들이 제대로 간추려 실려 있다. 글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뛰어났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진위 가려 모은 정본

다음으로 이 난해한 한시와 높은 수준의 산문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높고 올바른 역자를 만나야 하는데, 신호열(辛鎬烈) 선생과 임형택(林煥澤) 교수 두 적격의 분들이 번역을 완수해냈다. 한시의 번역에 완전무결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계(斯界)의 최고 수준의 역자를 만났음이 또한 이 책의 자랑이다. 더구나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하신 스승의 뒤를 이어 제자가 일을 끝마치는 아름다운 모습은 사제(師弟)의 뜨거운 정과 의리가 야박한·오늘, 이 책의 큰 자랑거리다.

좋은 내용의 책에 훌륭한 역자를 만난 것도 자랑이지만, 이만한 책을 편집하고 교정해서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훌륭한 책으로 꾸며낼 수 있었던 것은 편집 교정의 최고 수준인 정해림(丁海廉) 학형을 만난 덕분이다. 국학관계 서적의 편집 교정에 그를 능가할 분이 없는 오늘, 《백호전집》에 그분의 노고가 가미된 것은 참으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책의 장정이나 체제도 최고 수준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탁월한 원저, 높은 수준의 역자, 뛰어난 편집 교정, 이 3자의 융합 속에서 백호의 문학

은 현대인들의 문학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나아가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백호의 산문 등이 대부분 수록되어 그의 해박하고 넓고 큰 산문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나라 문학사에 훌륭한 이정표를 새롭게 그을 수 있게 되었다.

임교수의 노력에 의하여 백호의 연보가 작성되어 부록으로 실렸고, 백호집 부록이 완벽되어 백호의 삶과 인생역정은 물론 그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까지 읽을 수 있어서, 백호의 문학만이 아니라 그의 인간까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우수성이 아닐 수 없다.

학문과 사상을 포함하여 문학의 전통도 갈수록 맥이 끊기고 있는 요즘, 전통의 맥을 이으려는 이만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그 방면에 안타까운 심정을 버리지 못하는 필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화의 전승·섭취·창조의 단계가 활발하지 않는 민족이 번성하기는 쉽지 않다. 훌륭한 옛 사람들의 한문으로 된 사상과 문학을 오늘의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알게 되어 있다. 한문으로 된 시나 산문도 잘만 번역해내면 바로 오늘 우리의 문학이요, 사상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가르쳐 주고 있다.

울곡이나 하곡(荷谷:허봉)같은 대문호들이 기기(奇氣)가 있다던 백호, 강고한 틀을 벗어나려 고뇌하고 방황하던, 그래서 풍류와 시심으로 갈등의 세속에 젊음을 던졌던 백호가 우리의 책상 앞에 살아와 계심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족을 하나 달고 싶은 말이 있다. 당제(堂弟) 임서(林僖)가 발문에서 말한 대로 백호는 시집의 본령은 ‘정기간(精而簡)’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백호의 모든 저작을 통째로 수집해서 번역했는데, 이 점은 백호의 본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옛 사람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드는 일에서 이 점은 한번쯤 고려했으면 좋겠다. ❖

창작과비평사/A5신/1124면/50,000원